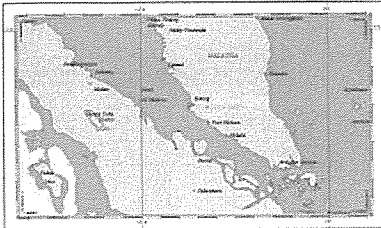


# 말라카해협 선박의 안전확보 국제협력 본격화

## 연안국과 이용국 협력방안관련 결의문 채택



해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말라카해협의 안전을 강화

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이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IMO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7-8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연안 3국을 위주로 추진돼 온 말라카해협의 안전보장 활동에 해협 이용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말라카해협의 안전증진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연안국과 이용국의 협력방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초 연안 3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의 일부 해협 이용국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 이번 회의에는 30개국 2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해 말라카해협의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정일영 해양부 안전관리관)은 우리나라 원유물동량의 99%, 해상물동량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말라카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필수 해상수송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IMO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했다.

대표단은 또 해협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IMO에서 추진중인 말라카해협에 대한 해양전자고속도로(MEH) 구축사업이 해적·테러 등 해상보안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보고 이 사업에 올해부터 2007년까지 10억원의 재정을 기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에 있는 말라카해협은 동아시아 지역의 원유수송로서 이 항로 폐쇄돼 우회항로를 이용할 경우 3일의 항해거리 추가로 인한 막대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게 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해협이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말라카해협 인근의 등대, 부표 등 항행보조 설비의 안정적인 운용과 해적퇴치 문제 등 말라카해협 안전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후속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말라카해협에서의 효율적인 해적퇴치를 위해 조만간 싱가포르에 해적정보공유센터가 설립되어 관련국가간 정보공유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04년 11월 일본 동경에서 한국, 중국 등 16개국 서명대상국이 참가해 '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 협정'을 채택하였으며 협약의 주요내용 중 하나가 바로 싱가포르에 해적정보공유센터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적정보공유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총 제 22조항에 달하는 협정발효가



선행되어야 하고 협정발효를 위해서는 최소한 10 개국 이상이 협정에 서명하여야 하는데 현재 일본, 싱가포르, 라오스 3개국만이 협정에 가입한 상태다.

최근 해양경찰청은 동협정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절대량이 통과하는 동남아 해상의 안전 확보에 기여와 협정을 통한 가입국간의 해적/해상강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여 외교통상부에 적극

찬성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동협정에 의해 각국은 관리이사회 (Governing Council)에 대표 1인과 연락관 (Focal Point) 1인을 두게 되어 있는 바 해양경찰청은 우리나라 해상치안업무 전담기관으로서, 그리고 해적피해 발생시 동남아 해상치안기관과 직접 협력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연락관(Focal Point)는 반드시 해양경찰청에서 맡아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다.

## 대산지방해양청, 책임운영기관 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장관상 표창 및 포상금 1,300만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한호)은 정부 전체 23개 책임운영기관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8월30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기관장에게 조직, 인사, 예산, 회계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 기관장이 기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23개 기관이 있다.

금번 표창은 2004년도 1년간 기관운영실적을 제3의 기관이 평가한 것으로 대산청은 전체 23개 기관중 4위를 하였으며, 2001년 1월1일자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2번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대산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유는 새로운 양식개발 등 새로운 아이디어개발, 대산항건설 오탁방지막 개선 등 행정효율화 추구, 선원민원이동실 운영 등 대국민서비스 향상으로 책임운영기관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 것이 높게 평가되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대산청은 ‘자율과 책임’이라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취지에 맞게 책임효율경영이라는 운영방침을 정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키우고 기관의 재정자립도를 향상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책임운영기관 도입·정착에 노력해왔다. 특히, 연간 30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는 대산항 건설, 고객위주의 해운서비스 공급, 연중무휴 항만서비스, 자율관리사업 등 해양수산 고객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대산청은 우수기관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행정의 문턱을 낮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위한 행정을 펼쳐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책임운영기관 선두 주자로 타 기관의 모범이 되어 책임운영 경영술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을 것이며, 특히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산항을 조기 완공하여 항만세입을 증가시켜 책임경영효율기반을 공고히 구축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